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 체 사 상 으 로
튼 튼 히 무 장 하 자 !

로동신문

조 선 로 동 당 중 앙 위 원 회 기 관 지
제209호 【루계 제23161호】 주체99 (2010) 년 7월 28일 (수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께 서
전 승 절 경 축 음 악 회 를 관 람 하 시 였 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전승절경축음악회를 관람하시였다.

자나깨나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뜻깊은 경축음악회를 보게 된 관람자들은 크나큰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은 선군의 기치높이 전당, 전군, 전민을 백승의 한길로 향도하시며 주체조선의 존엄과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누리에 떨쳐가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전승절을 맞는 그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 최영림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영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장인 장성택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동지, 김국태동지, 김기남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대장 리영호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이며 인민보안부장인 주상성동지와 군대와 무력기관의 지휘성원들과 당중앙위원회의 책임간부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경축음악회무대에는 남성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우리의 7.27》, 남성2중창 《전사의 노래》, 전시가요련곡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전호속의 나의 노래》, 《아무도 몰라》, 《자동차운전사의 노래》, 관현악과 남성합창 《문경고개》, 남성합창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장군님의 안녕 지키여가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병사의 발자욱》, 남성합창 《변이나는 내 나라》, 《승리자의 선언》,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승리의 열병식》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전투적기백이 나래치는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를 피수로 하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격파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영예롭게 수호함으로써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개를 만천하에 떨친 조선인민군과 인민의 자랑찬 위훈을 격조높이 노래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또한 출연자들은 새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날강도 미제와 그 주구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단 한치라도 감히 건드린다면 다지고다져온 선군총대의 위력으로 무자비하게 짓부셔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금성철벽으로 수호해갈 백두산혁명강군의 멸적의 투지를 힘있게 과시하였다.

관람자들은 승리의 함성인양 장엄하게 울려퍼지는 충성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무한한 격동속에 들으면서 류례없이 간고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고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잊을수 없는 전화의 나날들을 긍지높이 돌이켜보았으며 영웅전사들이 지녔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영원히 백승만을 떨쳐갈 불타는 결의를 다짐하였다.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희망찬 미래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도도히 굽이치는 음악회는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울려퍼지고 어버이장군님을 우러러 터치는 관람자들의 열화같은 흠모심의 분출로 하여 장내는 충성의 대하마냥 세차게 설레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이 조선의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 혁명적 군인정신이 나래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훌륭한 음악회를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전체 창작가, 예술인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에서의 력사적승리는 조국의 운명을 생사존망의 위기에서 두번다시 구원한 민족사적사변이였으며 그 어떤 힘도 자주, 독립, 사회주의에로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전진을 막을수 없다는것을 현실로 확증한 자랑찬 승리였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반미전승업적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공훈국가합창단의 예술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포연탄우를 헤치며 싸우는 고지에서 전사들을 위훈에로 불러주던 그날처럼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적극 고무추동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원군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당의 선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선교구역종합식당, 신천군량정사업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조국보위와 강성대국건설에서 백두산혁명강군의 위용을 떨치고있는 인민군군인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선군조선의 자랑인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데 이바지하였다.

지난 기간 인민군대를 성심성의로 원호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평성은하피복공장 종업원들은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해마다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군인들과 특류영예군인들을 더 잘 도와주고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 국장 김명현, 철산군 관개관리소 지배인 정국보는 선군시대 일군답게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하면서 원군사업에서 모범이 되고있다.

원군을 최대의 애국으로, 제일가는 가풍으로 여기고있는 김책공업종합대학 락아소 소장 박정옥과 그의 가정에서는 10여년전부터 인민군군인들을 위한 일에 지성을 바쳐오고있다.

체육성 산하단위 로동자 백윤희는 선군의 총대우에 사회주의조국의 안녕도,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것을 자각하고 군인들의 군무생활에 도움이 될 많은 원호물자를 보내주었으며 영예군인의 생활도 따뜻이 돌봐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전사들을 위해서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창광원 로동자 리정희는 인민군군인들을 물심량면으로 원호하고있으며 평양시출판물관리국 평양책방 보급원 정영순은 강반석혁명학원을 여러차례 찾아가 성의껏 마련한 원호품들을 원아들에게 안겨주어 그들이 건강한 몸으로 학습을 잘해나가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만포시상업관리소 려행자상점 책임자 조옥순은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을 짜고들면서 인민군대를 돕기 위한 사업에서 대중의 모범이 되고있으며 청진영예군인교정기구수리공장 로동자 김명순, 청진시 포항구역 수북2동 80인민반 최경희도 병사들과 영예군인들에게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지난 기간 특류영예군인가정을 잘 돌봐준것을 비롯하여 사회와 집단을 위해 많은 일을 한 문덕군 립석리 5인민반 리정복은 원군사업에 모든것을 바침으로써 병사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 존경받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영광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원군사업과 혁명과업수행에서 더 높은 열성을 발휘함으로써 절세위인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 명 활 동 소 식 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신 소식을 네팔신문 《아르판》 2일부가 보도하였다.

신문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2월 5일청년광산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광산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고있는 광물들과 화학제품들을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북중기계련합기업소를 찾으시여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자체의 힘과 기술로 성능이 좋은 새로운 기계들을 훌륭히 만들어내고있는 기업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북중전극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 식 전극생산의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로동계급을 치하하시고 흑연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우리의 흑연공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믿음을 안겨주신데 대하여 전하였다.

신문은 또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룡천군 장산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상세히 보도하였다.

⁂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려진 장아찌생산공정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13일 라오스통신이 보도하였다.

통신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원산군민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이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조건에서 방대한 건설공사를 자력으로 해내고있는것은 놀라운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여 만년대계의 재부를 마련해가고있는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것이 경제적일뿐아니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시면서 대규모 수력발전소들과 함께 중소형발전소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종합식료공장에 새로 꾸려진 장아찌생산공정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기술장비 및 생산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공정을 잘 꾸리고 특색있는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군인들에게 제일 좋은것을 마련해주자는것이 조선로동당의 의지이고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뜨거운 애병정신을 계속 높이 발휘하여 생산을 부단히 늘임으로써 맛좋고 영양가도 높으며 건강에도 좋은 여러가지 장아찌들과 식료품들을 군인들에게 많이 보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군인들에게 질좋은 식료품을 더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는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와 자재를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전승절에 즈음하여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반제반미투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가운데 수도 평양과 각지에 모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동상으로 군중의 물결이 끊임없이 굽이쳤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찾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앞에는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꽃바구니가 놓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시내 각급 기관, 기업소, 공장,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또한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 등의 글발들이 씌여져 있었다.

참가자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무비의 담력,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탁월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돌이켜보며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인민보안부, 평양학생소년궁전 등 여러곳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도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각지의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자기 고장에 모신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 꽃송이를 진정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백두의 천출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전승업적은 영원불멸하리라는 철리를 간직하고 선군의 기치높이 강성대국건설과 반제반미투쟁에서 영웅조선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나갈 굳은 의지를 가다듬었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은 언제나 승리만을 떨칠것이다
국 제 사 회 계 가 확 신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세인을 놀래우는 번영의 시대를 창조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백절불굴의 투쟁모습에서 국제사회계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찬란한 미래를 확신하고있다.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씨오날》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을 타승한것, 재더미속에서 짧은 기간에 전후복구건설을 끝내고 단 14년동안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한것, 지난 세기 말엽 여러 사회주의나라들이 붕괴된 속에서도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고수하고 오늘은 강성대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것 등은 보통의 상식이나 론리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조선에만 있는 특수한 위력, 조선인민의 정신력으로만 설명할수 있을것이다.

로씨야신문 《나호드낀스끼 라보치》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지난 세기 30년대초 조선혁명가들이 유격대를 창건하고 일본제국주의와의 결전을 시작할 때 그들에게는 그 어떤 정규군의 지원도, 국가적후방도 없었다.

그들에게 있었다면 나라의 독립은 그 누가 가져다줄수 없으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손에 무장을 틀어쥐고 침략자들을 쳐부셔야 한다는것, 전체 조선민족의 힘을 총동원할 때 나라의 해방을 능히 이룩할수 있다는 신념 하나뿐이였다.

그 신념으로 그들은 만난을 이겨내며 무장대오를 끊임없이 확대강화하고 전체 인민을 반일항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켜 조선해방위업을 이룩하였다.

신념의 강자, 조선인민에게는 언제나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세네갈건설성 총서기는 1950년대 조선전쟁은 다시는 나라를 빼앗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사생결단으로 일떠선 사람들, 자기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뭉쳐 자기 조국, 자기 제도를 지키기 위하여 떨쳐나선 군대와 인민은 그 누구도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똑똑히 보여주었다고 격찬하였다.

인디아신문 《파블리크 뉴스》는 미국은 조선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할것이라고 하였지만 조선은 짧은 기간에 복구건설을 끝냈으며 단 14년동안에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수행하였다, 이 놀라운 현실을 안아온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바로 주체사상을 자기의 신념으로 간직한 조선인민의 투쟁정신이였다고 강조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위원장은 조선은 1990년대에 들이닥친 상상할수 없었던 고난들을 이겨내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의 신념과 희망은 굳건하다, 그들은 제국주의자들의 가혹한 압력에 굴복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오히려 사회주의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갈것이다고 말하였다.

체스꼬신문 《체스꼬슬로벤스끼 꼼무니스따》는 최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은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제낄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김정일각하의 령도를 받는 조선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백두의 천출명장을 높이 모시여 백승의 력사 영원하리

전승절의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존엄과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친 승리의 7월 27일!

뜻깊은 이날을 맞는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내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신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감사의 정으로 끓어번지였다.

그 마음 어려서인가 전승절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의 돌대문이 활짝 열리였다.

이날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수많은 사람들은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우리 혁명의 자랑찬 백승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갈 신념의 맹세로 가슴 불태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건자이시며 제국주의강적을 반대하는 두차례의 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주체의 군사사상과 전략전술, 주체의 전법을 창조하신 군사의 영재이십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안고 아침부터 인민군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물결이 광장으로 흘러들었다.

대원수별이 숭엄하게 부각되여있는 돌대문을 지나 사람들의 발걸음은 금수산기념궁전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태양상앞으로 향하였다.

어버이수령님, 전쟁로병들이 왔습니다라고 뜨겁게 아뢰이며 인사드리는 로병들과 새 세대 군인들, 로동자, 농민, 사무원, 청소년학생들을 비롯하여 이곳을 찾은 남녀로소모두가 정의의 총대로 조국을 수호하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에 휩싸여있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의 모습을 우러를수록 50여년전 미제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전승광장의 연단에 높이 서시여 영웅적인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손들어 답례하시던 수령님의 그 모습이 안겨오고 전승광장에 메아리치던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습니다.》

광장에서 우리와 만난 룡성구역 룡궁1동에서 사는 리두희로인을 비롯한 전쟁로병들의 한결같은 말이였다.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르던 그날 어버이수령님을 모시였던 감격이 어려서인가 그들의 눈가에는 추억의 빛이 짙게 어려있었다.

돌이켜보면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는 어버이수령님의 천재적인 군사적지략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그이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안아온 빛나는 승리였다.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현대전쟁력사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가장 격렬한 전승의 전쟁이였다.

미제는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요람기에 없애버리려고 최신장비로 무장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였다.

무장장비와 력량간의 차이는 너무도 엄청난것이였다. 세계는 지켜보았다.

파연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것인가.

당시 서방의 출판보도물들이 미군의 《승리》에 대하여 떠든것도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한것은 동방에 거연히 일떠선 주체조선, 영웅조선이였고 수치스러운 패배의 구렁텅이에 처박힌것은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였다.

미제가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력사의 그날 조선사람을 몰라보고 미친듯이 헤덤비는 적들에게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단호히 선언하신 우리 수령님,

전쟁의 승리는 이미 그때에 결정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대전의 나날에 창조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풍부화시키시며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전략전술적방침들과 전법들을 내놓으시여 전쟁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으시였다.

적들의 불의의 침공에 대한 즉시적이고 전면적인 반공격전과 련속적인 타격전, 적의 배후에서의 대부대에 의한 제2전선형성, 기본전선과 제2전선의 협동에 의한 대포위작전, 갱도전에 의한 적극적인 진지방어전, 땅크습격조운동…

동서고금의 그 어느 병서나 전쟁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비범한 전략전술과 무비의 담력앞에서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침략자들의 오만한 코대가 꺾어졌다.

미제를 쳐부신 내 조국땅에는 승리의 함성이 터져올랐다.

잊지 못할 력사의 그날 전승의 단상에 오르신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 우리 군대와 인민이 터친 《만세!》의 환호성, 그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의 위대한 수호자, 위대한 은인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의 폭발이였고 강철의 령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절대적인 신념의 분출이였다. 그날의 그 감격과 환희가 전승절의 아침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 그대로 펼쳐진 듯싶었다.

우리와 만난 중앙정보통신국에서 일하는 리창남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을 우러르느라니 우리 인민들의 소박한 목소리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시던 수령님의 그날의 그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니 준엄한 전화의 나날 신포향동무를 비롯한 락원의 10명 당원들의 목소리, 장산리녀성들의 풍금소리,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의 길에서 법동농민의 신념의 목소리를 들으시며 이런 인민과 함께라면 미제를 때려부시는것은 문제로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말씀이 귀전에 메아리치는듯싶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는 사람들로 차고넘치였다.

광장을 찾은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조선인민군 군관 백성철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전승절에 병사들과 함께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으니 위대한 전승업적을 이룩하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우리 군인들은 앞으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혁명의 총대, 계급의 총대를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백승의 력사를 더욱 빛내여나갈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그의 심정뿐이랴.

보통강구역 붉은거리1종합진료소에서 일하는 김남희, 강인옥, 량경순, 한분희동무들의 말을 들어보아도, 대원수님 뵙고싶어 광장을 찾았다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공부하는 리진성, 박성일동무들의 말에 귀기울여도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 제자답게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갈 불타는 맹세가 어리여있었다.

우리는 금수산기념궁전광장에서 대대로 백두산위인들을 모시고 승리만을 떨쳐온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승리떨쳐온 전세대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백승의 력사를 이 땅우에 찬란히 수놓아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의 맹세와 충정의 각오로 금수산기념궁전광장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글 본사기자 김용진
사진 전성남

숭고한 인민관

조선로동당대표자회와 더불어 뜨겁게 안겨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우리 당령도사는 숭고한 인민관에 기초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으로 이어지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수놓아진 위대한 력사이다.

여기에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절세의 위인의 숭고한 인민관을 전하여주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동지들과 인민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김정일동지의 정치에서 기본특징을 이룬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주체77(1988)년 12월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이 결론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찾아뵈왔다.

그때 인민생활과 관련한 수많은 자료들을 보시고 나라난 편향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그 일군에게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우리 당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고 하시면서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부터 애국도 나오고 혁명도 시작된다다, 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이 놓여있습니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것이 수령님과 나의 목적이고 리념입니다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으며 한없는 감동과 격정을 금치 못하던 일군은 그후 장군님의 고전적로작들을 학습하고 또 자기가 실지 체험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수첩에 가장 열렬히 숭배하는 《하느님》은 인민, 가장 높이 존경하는 선생은 인민, 제일 힘있는 존재는 인민, 제일 재능있는 창조자는 인민, 제일 강한 무기는 인민의 일심단결, 가장 큰 념원은 자주성이 실현된 인민의 락원건설, 가장 큰 기쁨은 인민의 행복, 가장 큰 괴로움은 인민의 불행, 가장 큰 분노는 인민의 존엄과 리익에 대한 침해, 제일 사랑하는 좌우명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합!》이라는 장군님의 인민관에 대한 10가지 내용의 글을 새겨넣었다. 그리고는 그 수첩을 늘 가지고다니면서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았다.

그러던중 주체78(1989)년 정초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회에 그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10대인민관에 대하여 적은 문건을 보여드리면서 《수령님, 이 글을 좀 보아주십시오. 가르치심을 받고싶습니다.》라고 말씀올렸다.

문건을 받아드시고 다 읽고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동무가 흥미있고 통속적으로 묶어놓은 김정일동지의 10대인민관은 어느 조항이나 김정일동지의 인민적풍모에 기초한것이므로 보충할것도 덜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처럼 인민을 존대하며 사랑하는 위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김정일동지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인민을 하늘처럼 믿고 선생으로 존대하며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운명도 같이하는 숭고한 인민관에서 흘러나옵니다. 인민에 대한 참된 믿음과 사랑은 령도자의 가장 고결한 천품으로서 천하를 얻는 힘으로 됩니다. 동무들은 김정일동지의 모범을 따라배워 그의 인민관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인민들을 굳게 믿고 열렬히 사랑하는 일군이 되여야 합니다. …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칭송하여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을 인덕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신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으로 세차게 높뛰게 하고있다.

본사기자 리성국

사상사업을 기본으로 틀어쥐시고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우리 혁명앞에 엄혹한 정세가 조성되고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이 더욱 로골화되고있던 1990년대말 어느날이였다.

사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어떤 곤난속에서도 견디여내는 강의한 의지의 소유자만이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뚫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혁명영화 《조선의 별》의 주제가인 《동지애의 노래》에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맥박치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노래의 기본핵은 2절에 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라는 대목에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구절에는 어떤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수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켜싸워나가야 한다는 사상이 담겨져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혁명적신념과 강의한 의지는 자기 당과 자기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 자기 위업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인식에 바탕을 두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충실성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당과 함께 운명을 끝까지 같이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주체의 혁명위업,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오늘은 비록 모든것이 부족하고 난관과 시련에 찬 강행군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신심을 더욱 굳게 가지도록 하며 모두가 신념의 강자, 의지의 강자로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우리 일군들이 인민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야 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다.

주체85(1996)년 1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참으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이 인민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면 혁명이 전진하고 나라가 흥하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인민의 배척을 받게 된다는것은 세계사회주의운동이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이 받아안은 충격은 컸다. 우리 당을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혁명적당으로, 선군시대에 우리 당을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 참다운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시여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여 일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할 때에만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을수 있고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고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날의 가르치심은 일군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그이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새겨안으며 일군들은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로현찬

전승절에 즈음하여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화환,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27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애국렬사릉에 화환들이,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화환이 렬사릉들의 화환진정대에 놓여있었다.

렬사릉들과 기념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군대,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화환, 꽃바구니진정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렬사릉들의 화환진정대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기념탑중심주제 《승리》상 앞에 진정되였다.

무력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조선인민군 부대,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과학, 교육, 보건, 출판보도기관, 평양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화환들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애국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륭성번영, 인민의 자유와 행복, 나라의 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 투쟁한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력사적승리를 이룩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꽃바구니 진정

마라초에 깃든 사연

언제인가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마라초는 땅크병마라초이라고, 해방직후 우리 어머님께서는 만경대증조할아버님께서 손수 심어가꾸신 마라초를 땅크병들에게 가져다주신 일이 있다고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여기에는 이런 가슴뜨거운 사연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숙동무는 조국의 광복과 우리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운 열렬한 혁명가였습니다.》

주체37(1948)년 10월 어느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는 어느 한 땅크부대지휘부를 찾으시였다.

부대지휘관들과 인사를 나누신 김정숙동지께서는 땅크병들을 만나보려 왔다고 하시면서 지금 땅크병들이 무엇을 하고있는가고 물으시였다.

부대지휘관이 김일성장군님께 맹세드린대로 3개월동안에 땅크를 운전할수 있게 준비하기 위하여 훈련하고있다고 말씀드리였다.

이윽하여 땅크병들이 있는 곳으로 가신 그이께서는 오늘 내가 땅크병들이 좋아하는 잎담배를 가지고왔는데 한대씩 피우고 훈련하라고 이르시였다.

김정숙동지께서는 잎담배를 땅크병들에게 나누어주시며 이 잎담배는 만경대의 김보현할아버님께서 몸소 심고 가꾸신것이라고 하시면서 며칠전에 만경대에 가서 할아버님께 땅크병들이 잎담배를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자신께서 심고 가꾸어 수확한 담배를 모두 땅크병들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뜨거운 사연이 깃든 잎담배를 말아피우며 싱글벙글 웃는 그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지금 동무들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하시면서 훈련을 잘하여 땅크부대의 핵심이 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땅크병들은 김정숙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잎담배를 보내주신 김보현할아버님께 자기들의 인사를 전해주실것을 말씀올리였다.

그러자 그이께서는 만경대할아버님께 땅크병들의 인사를 전해드리겠다고, 그러면 할아버님께서 매우 기뻐하실것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은 하루빨리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훌륭한 땅크병이 되여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땅크병마라초에 대한 이 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의 건군위업을 가장 충직하게 받드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로고를 길이 전하며 끝없이 전해질것이다.

본사기자 황명희

전승절에 즈음하여

각지 렬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렬사묘들에 화환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27일 각지에 있는 렬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렬사묘들에 화환이 진정되였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각계층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화환진정에 참가하였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렬사들의 동상과 인민군렬사탑, 렬사묘들에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부대,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공장, 기업소, 농장, 학교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과 꽃다발, 꽃송이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의 령도따라 조국의 자유독립과 부강번영,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쳐싸운 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받들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계속 혁신

령도업적단위들이 대고조의 앞장에 섰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드높은 일념안고 떨쳐나선 서해벌방농촌들의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공동사설의 과업을 받들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남도 농촌들의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기본면적의 김매기와 비료주기를 끝내고 두벌농사포전에 대한 김매기를 속속 결속해가면서 당면한 영농전투에서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지으면 그 어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둘수 있으며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갈수 있습니다.》

서해벌방농촌들의 당조직들에서는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비상히 앙양된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농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진행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리였다. 특히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는 령도업적단위들이 맨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떠밀어주었다.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안고 당면한 영농전투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총공세의 불길은 롱천벌과 운전벌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농촌들에서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도농촌경리위원회와 시,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들에서는 농장, 작업반, 분조들에서 강냉이, 논벼, 콩 등을 심은 날자에 따라 농작물가꾸기계획을 바로세우고 그 질과 속도를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해나가도록 힘있게 떠밀어주었다.

롱천벌의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모내기와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논물관리와 병해충피해막이를 비롯한 당면한 농작물가꾸기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불타는 일념안고 분발해나선 롱천군 신암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포전상태에 맞게 김매기계획을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논밭 4회김매기를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 6월 농장을 찾으시여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불타는 일념을 안고 산악같이 일떠선 롱천군 장산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논밭김매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해제낀 기세로 협동농장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포전상태에 맞게 김매기계획을 날자별로 구체적으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논밭 4회김매기를 훨씬 앞당겨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평안남도 농촌들의 령도업적단위 농업근로자들도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비상한 열의를 안고 농작물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투쟁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특히 열두삼천리벌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논벼생육조건에 맞게 과학적인 논물관리를 진행하여 포기들을 실하게 자래우면서 병해충에 의한 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 한포기의 곡식도 상하지 않게 하고있다. 숙천군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는 방송선전차, 포전방송기재들을 비롯한 선전선동수단들을 집중시켜 모두가 신심드높이 당면한 농작물가꾸기에서 련일 높은 실적을 올리게 하고있다.

유기농법을 받아들일데 대한 공동사설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떨쳐나 여러가지 대용비료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여 농작물가꾸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한 문덕군안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도 당면한 풀베기전투를 본때있게 내밀고있다.

재령벌을 비롯한 황해남도안의 령도업적단위들에서도 당면한 영농전투에 모든 력량을 총동원, 총집중하고있다. 삼지강, 오국협동농장들을 비롯한 재령군, 안악군안의 농장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기어이 풍요한 가을을 안아올 드높은 열의안고 당면한 농작물가꾸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연백벌안의 농업근로자들은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자욱이 뜨겁게 새겨져있는 영광의 땅에 더 좋은 농사작황을 펼쳐놓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다.

연안군과 청단군, 배천군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 불리한 날씨조건에서도 논벼생육에 좋은 조건을 보장해준 기세로 뒤그루농작물가꾸기에 박차를 가하여 성과를 거두고있다.

서해벌방농촌들의 령도업적단위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당대표자회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당면한 농작물가꾸기와 함께 풀베기전투에서 날마다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영광의 땅에 애국의 구슬땀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서

절세의 위인들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영광의 땅이 끓는다. 풀베기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농장원들의 얼굴에도, 뒤그루큰모를 낸 포전을 가꾸어가는 농장원들의 얼굴에도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영예와 긍지가 넘쳐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식량증산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해나가야 합니다.》

지난 6월말 원화마을의 이른새벽, 제1작업반 두벌농사포전은 법석 끓어번졌다.

당대표자회를 소집할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에 접하고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어 여느때없이 일찍 영광의 포전으로 달려나온 농장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이였다.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깃든 땅에 풍요한 가을을 마련한 기쁨안고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하자!

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의 가슴은 이런 결의로 높뛰였다.

크나큰 격정과 뜨거운 열의를 안고 분발하여 앞그루감자캐기를 시작한 작업반원들은 그날 계획을 200%로 수행하였다. 이 작업반원들만이 아니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4배나 늘어난 두벌농사면적의 감자캐기와 뒤그루큰모내기를 한주일동안에!

모든 작업반들이 높이 세운 전투목표를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려는 원화리사람들의 애국열의는 날에날마다 전에 없던 혁신을 안아왔다.

온 벌이 말그대로 전투장이였다. 농장원들의 심장의 피를 끓이는 선전화와 힘있는 구호들, 이동속보판이 전개된 두벌농사포전들은 불도가니마냥 끓어번졌다.

그러나 방대한 작업량을 짧은 기간에 끝낸다는것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특히 제4작업반 수렁논에서의 뒤그루큰모내기는 힘겨운 전투였다.

뜨락또르가 빠지는 수렁논에 남먼저 뛰여든 농장일군들은 수평고루기를 번듯하게 하여 모내기작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해나갔다.

례년에 없이 작업량이 많은 조건에서도 뒤그루큰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끝내던 날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의 눈가에 뜨겁게 맺히던 눈물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당을 받들어가는 원화리사람들의 드높은 긍지의 표현이였다.

지난 7월초 어느날 깊은 밤, 논밭을 돌아보던 관리위원장 한정화동무는 제1작업반 3분조 포전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었다. 달빛을 불빛삼아 강냉이밭김매기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띄였기때문이였다. 첫 이랑을 타고나가며 부지런히 김을 매는 사람은 분조장 림호준동무였다.

어떻게 되여 깊은 밤에 이렇게 밭김을 매는가 묻자 분조장은 이렇게 말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우리 원화협동농장이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야 할게 아닙니까.》

절세의 위인들을 명예농장원으로 높이 모신 긍지, 그 영예를 실천으로 빛내려는 열렬한 자각, 이것이 농장이 모든 영농전투들에서 군적으로 앞서나가게 한 비결이였다.

그 열렬한 자각안고 이삭비료주기와 김매기를 말끔히 함으로써 논밭을 꽃밭처럼 만들어놓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풀베기전투에서 날마다 새로운 혁신을 창조하고있다.

애국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것이다. 땀을 바친것만큼 쌀더미가 높아진다.

바로 이것이 영광의 땅에서 살며 일하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알곡증산으로 백두산위인들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는 원화리사람들의 삶의 좌우명이다.

본사기자 김 향 란

현실속에서 찾은 방도

염주군 다사협동농장에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들끓고있는 염주군 다사협동농장의 드넓은 간석지포전에 줄이 벌어지게 아지를 친 벼포기들이 키돋움을 하고있다.

풍요한 가을을 그려보게 하는 흐뭇한 광경이 마련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논물관리를 잘해나가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지난 어느날 간석지제방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포전머리에서는 논물관리공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협의회가 현장에서 진행된데는 까닭이 있었다.

이 농장은 간석지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이러한 조건은 논물관리공들로 하여금 논벼들이 염기피해를 받지 않게 논물의 깊이대기와 갈아대기에 깊은 관심을 돌릴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되여 논물관리공들의 현장협의회가 진행되게 되였던것이다.

협의회에서 관리위원장은 특히 논물관리공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는것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다음 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방도를 함께 의논해보자고 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는 속에 여러가지 안들이 제기되였다. 그중에서도 농장의 지대적특성에 맞게 몇개 작업반씩 물을 집중적으로 대주자는 안은 혁신적이였다. 이 물대기방법을 받아들이면 같은 물량을 가지고도 포전들에 물을 충분히 대줄수 있을것 같았다.

관리위원장은 논물관리공들이 내놓은 안을 작업반장, 분조장들과도 협의해보았다.

그들도 이 방법을 받아들이면 논벼의 염기피해를 막기 위한 물대기를 순환식으로 진행할수 있어 합리적일것이라고 하면서 지지하였다.

농장에서는 새로운 물대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갔다.

농장에서는 이 물대기방법을 받아들이면서 구역별로 물을 집중적으로 대주는데 맞게 비료와 농약을 친 날자를 고려하여 두개 작업반씩 물을 몰아서 순환식으로 보내주었다.

여기서 농장일군들이 잘한것은 작업반기술원들과 비료시비공, 논물관리공들이 협동을 잘하도록 한것이다.

한것은 비료시비와 논물관리가 서로 밀접히 련관된 영농작업들이기때문이였다.

(어떻게 하면 비료의 효과성을 높이면서도 논물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할수 있겠는가. …)

생각을 거듭하던 끝에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에서 비료와 농약을 친 포전들에는 흰색표식기를, 물을 갈아댄 포전들에는 빨간색표식기를, 물을 갈아대야 할 포전에는 푸른색표식기를 꽂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멀리에서도 그 실태를 알고 그에 맞게 물대기를 기술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니 논물관리공들과 비료시비공들의 련계가 밀접해지고 협동이 잘됨으로써 물을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었다. 또한 염기가 많은 포전들에 대한 물갈이회수를 늘이면서 논벼생육에 좋은 조건을 보장해주게 되였다.

농장일군들과 농장원들이 이렇듯 현실속에서 지대적특성에 맞는 물대기방법을 찾아내고 적극 받아들인 결과 농장의 포전마다에서는 벼포기들의 생육상태가 나날이 좋아지고있다.

본사기자 김 순 흥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단천시 돌산협동농장에서

단천시 돌산협동농장의 풀거름더미가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있다. 풀원천이 적은 농장인데 날이 갈수록 풀더미가 높이 쌓이고있기때문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거름더미는 곧 쌀더미라는 구호를 들고 질좋은 거름을 논밭에 더 많이 내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려야 합니다.》

풀베기전투를 앞둔 어느 날이였다. 농장일군들은 작업반, 분조들을 돌아보면서 풀베기준비정형을 료해하였다. 어느 작업반, 분조들에서나 소농기구들과 운반수단들을 그쯘하게 갖추어놓고있었다. 하지만 일군들은 만족할수 없었다. 먼곳에 있는 늪지대의 풀을 베여들일것을 계획한 작업반들의 경우에 베여낸 풀단을 어디에 쌓아놓으며 어떻게 빨리 실어들이겠는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했던것이였다.

일군들은 작업반들에 내려가 농장원들과 무릎을 마주하였다. 지난 시기에는 떼를 무어 풀단을 실어내군 하였는데 더 합리적인 운반수단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여러가지 안들이 나왔다. 그중에서도 배처럼 널판자로 만든 함을 띄워놓고 거기에 풀단을 실어 가득차면 끌어내자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였다.

이렇게 되여 제3, 4작업반들에서는 늪지대의 풀을 베여들이는데 필요한 운반도구와 바줄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고 앞질러가며 빈틈없는 준비를 갖추고 시작한 풀베기전투는 처음부터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무릎까지 빠지는 늪한가운데의 풀을 베는 청년들과 베여놓은 풀단을 기슭에 끌어내는 농장원들사이에는 말없는 경쟁이 벌어졌다. 운반을 맡은 농장원들은 풀단이 쌓이는족족 퇴적장으로 실어들이였다. 이 작업반원들만이 아니였다. 북천기슭의 풀판을 타고앉은 제2작업반의 농장원들은 적기에 풀을 베여 썩여야 질좋은 거름을 생산할수 있다고 하면서 매일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야 일을 마치였다. 제5, 1작업반들에서는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운반수단들의 리용률을 더욱 높여 날마다 풀더미를 높이 쌓아나갔다.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성과에 만족함이 없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당면한 풀베기전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애써 가꾼 농작물들이 장마철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있다. -함주군 신성협동농장에서- (조선중앙통신)

병해충피해막이대책을 잘 세워

신천군 우룡협동농장 제4작업반에서

적문제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어 농장원들이 병해충피해를 미리막도록 하고있다. 분조들에서도 포전과 집집마다 나비등을 설치함으로써 병해충의 발생근원을 없애고있다.

로농통신원 리 정 수

당사상전선을 지켜 값높은 삶을 빛내인 참된 당일군

신양군당위원회 부부장이였던 정용남동무

50대를 갓 넘긴 한 평범한 당일군이 우리곁을 떠나갔다. 하지만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전투기록장에는 그의 모습이 뚜렷이 새겨져있다.

선군시대 당일군은 어떤 신념과 의지를 지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야 하는가를 유감없이 보여준 신양군당위원회 부부장이였던 정용남동무는 비록 우리의 곁을 떠났으나 그는 군안의 사상교양거점들과 더불어 영생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살아도 혁명적신념을 지켜싸우고 죽을 때에도 그것을 베고 죽는것이 혁명가의 인생이다.》

우리는 여기에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불같이 살아온 그의 한생에 대하여 다는 적지 않는다.

인민군대중대장, 제대후 인평청년광산에서 로동생활을 할 때의 일들, 그후 15년간 당일군으로 사업하면서 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경애하는 장군님께 끝없이 충직한 선군혁명투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바쳐온 보람찬 나날들을 다 펼치자면 끝이 없다.

우리는 여기에 그의 한생의 마지막기간의 나날들만을 전한다.

2년전 4월 평안남도와 중앙의 병원들에서는 정용남동무에게 하나와 같이 치명적인 진단을 내리였다. 의사들은 정용남동무가 모르게 일군들과 가족들에게 눈으로 말하고있었다.

(무슨 병일가? 만약 불치의 병이라면…)

그는 분명 자기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는 예감이 들었다. 가슴이 조여들었다. 뜬눈으로 며칠밤을 새운 그는 의사들을 찾아갔다. 무슨 병인가고 거듭 묻는 그에게 의사들은 선뜻 대답을 줄수가 없었다. 마주서기조차 꺼려하는 의사들의 긴장한 눈빛을 보면서 그는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의사선생, 다른것은 더 묻지 않겠소. 다만 내가 알고싶은것은 얼마동안 더 살수 있겠는가 하는 그것이요. 그것만은 솔직하게 말해주오.》

하지만 의사들은 그가 왜 그토록 절절하게 호소하는가에 대해서 다는 몰랐다. 숱한 일감을 앞에 두고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니 통분하기 그지없었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현실은 부정할수가 없었다.

당일군으로 내세워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에 높은 사업성과로 보답하려고 한몸 아낌없이 내대던 나날들이 눈앞에 삼삼히 떠올랐다.

군안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들을 사상교양의 거점들로 훌륭히 꾸리고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자신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다 바쳐왔던 그 나날들은 얼마나 긍지롭고 보람찼던가.

읍지구에 있는 어느 한 교양거점의 난방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였다. 그는 교심어린 연구끝에 직접 무동력보이라를 설계하고 그후 2차에 걸쳐 실정에 맞게 개조하여 난방문제를 완전히 풀게 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군안의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기 위해 그가 바쳐온 헌신적인 사실들은 얼마나 많았던가.

지나온 나날들을 돌이켜볼수록 긍지는 가슴이 터질듯 넘쳐났다. 한창 일할 나이에 생을 마치게 된다는 고통으로 그는 몸부림쳤다.

그의 몸은 점점 쇠약해만 갔다. 밥이나 약보다 정신력으로 몸을 지탱해나갔다.

정용남동무는 앞으로 얼마 더 살수 있겠는가를 스스로 가늠해보았다.

(이제부터는 분과 초를 쪼개가며 일하자. 이 길이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결심하고 병원문을 나선 그는 누구도 모르게 생의 마지막시간표를 짜놓고 그대로 살며 일해나갔다. 안해와 딸이 병원으로 다시 갈것을 절절히 요구할 때마다 그는 내 병은 일을 해야 낫는다고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군 하였다. 웬만해서는 롱담을 하지 않던 그가 말도 이전보다 많이 하고 명랑해진듯 하였다. 아픈 내색을 감추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였다. 동통이 심할 때면 의식적으로 노래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속으로 조용히 부르기도 하고 시《어머니》를 읊군 하였다. 그러면 저도모르게 동통도 가셔지고 새힘이 샘솟군 하였다. 이런 의지로 그는 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생의 마지막길을 억세게 걸어갔다.

그는 군당책임일군을 찾아가 진정을 터놓았다.

《저에게 연구실건설과 개건사업을 당적분공으로 맡겨주십시오!》

너무나도 배포유한 말이였다.

(아, 우리 장군님께서 얼마나 훌륭한 선군시대의 당일군을 키워주셨는가.)

그를 마주한 책임일군의 가슴속에는 불보다 뜨거운것이 치밀어올랐다.

정용남동무는 스스로 받은 당적분공수행을 위해 장성리와 운봉리, 장산리를 비롯한 여러 단위에 새로 건설하는 연구실건설장들에 나가 건설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건설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무동력보이라를 설계해주어 매 단위들에서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광흥리, 송전리, 판성리를 비롯한 10개 단위의 연구실들도 동시에 개건하는 사업을 줄기차게 내밀었다. 읍지구에 있는 연구실현판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군에서 목재가공기술이 제일 높은 기능공을 찾아내고 그와 함께 며칠밤을 새우며 전면홈파기부각장식으로 특색있게 완성하였다.

지난해 5월 새로 건설한 군당위원회청사에 어버이수령님의 태양상을 모시며 1층 중앙홀에 백두산장군의 립상화를 정중히 모셔야 할 사업이 제기되였을 때에도 정용남동무는 스스로 읍에서 백수십리나 떨어진 곳에까지 가서 자재를 해결하여 액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그는 백두산3대장군의 영상작품들을 정중히 모시는 사업과 군안의 사상교양거점들을 훌륭히 꾸리는 사업에 여생의 힘을 깡그리 쏟아부었다.

그뿐이 아니다.

정용남동무는 군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억세게 키우기 위한 사업에 더 큰 힘을 넣었다.

그는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학습회, 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사상전선의 전초병, 기수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였다.

올해 공동사설과 당창건 65돐에 즈음한 공동구호판철에로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키기 위하여 그는 지난 기간 품을 들여 키워온 직외강연강사들을 발동하여 강연선전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그리하여 군안의 모든 전투장마다에는 당의 목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게 되였다.

지난 3월 하순 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초급당일군들과 연구실관리원들을 위한 실무강습과 보여주기사업을 조직하였다. 이때에도 정용남동무는 아름을 이겨내며 여러 시간동안이나 직접 출연하여 참가자들의 눈굽을 적시게 하였다. 그리고 며칠후에는 직외강연강사들이 도경연에서 출연할 강연제강을 한건한건 수정가필해주었다. 지난 4월 중순경부터는 몸을 운신조차 하기 힘든 최악의 상태에서도 절대안정을 요구하는 의사들과 가족들에게 《내 병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연구실에 나가야 낫는다.》고 하면서 안해 우인실동무의 부축을 받으며 연구실에 나왔다. 그는 연구실의 매 호실들을 돌아보면서 장마철피해막이대책을 미리부터 세울데 대한 문제, 외장재바르기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할데 대한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는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말았다. 그로부터 며칠후 생의 마지막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였을 때에는 군당비서와 연구실관리원에게 당창건 65돐까지 계획한 일들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가는것이 가슴에 걸린다고 하면서 채 하지 못한 일들을 부탁한다는 글을 남겨놓고 순직하였다. 생의 마지막힘을 깡그리 모아 한자한자 남긴 그 글은 바로 혁명동지들과 가족들에게 남긴 마지막말이였으며 죽어서도 사상교양의 거점들과 더불어 영생할 신념의 메아리였다.

생을 아름답게 마치는 사람은 당과 인민의 사랑과 추억속에 영생한다.

그렇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오늘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전진하는 대오속에 우리와 함께 있다.

본사기자 최 시 홍

제힘으로 일터를 잘 꾸린 보람

곡산군량정사업소

곡산군량정사업소에는 자랑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사업소구내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우거져 풍치수려한 공원을 방불케 하는것도 자랑이고 생산건물들과 문화후생시설들이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꾸려진것도 자랑이다. 하지만 생산설비들이 현대화되여 량곡가공의 질이 더욱 높아지고 후방기지들이 잘 꾸려져있는것은 자랑중의 자랑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과 거리, 집과 일터를 비롯한 생활환경을 새 시대의 맛이 나게 문화적으로 깨끗하게 꾸리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삼일포특산물공장을 찾으시여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 소식에 접하였을 때였다.

사업소구내와 생산현장을 돌아보던 일군들은 자책감을 금할수 없었다. 사업소의 면모를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자면 해야 할 일이 많았기때문이였다.

-생산건물과 후방기지도 더 멋들어지게 건설하고 설비들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군안의 인민들에게 실지로 덕을 주는 사업소로 전변시키자.

이렇게 결심한 일군들은 생산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였다. 량곡가공의 질을 높여 군안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자면 설비들을 보다 현대적이고 능률적인것으로 개조하여야 하였다. 지배인 량기풍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량곡가공설비들을 개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한가지씩 맡아안고 앞장에서 뛰였다. 설비개조를 담당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나갔다. 어떻게 하나 설비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대중의 열의는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땀흘리며 노력한 보람으로 설비들이 현대적으로 개조되고 생산현장이 새맛이 나게 꾸려졌다.

태양열온실을 3층으로 건설하면 남새생산을 그전보다 늘일수 있다는 안이 제기되였을 때였다. 사업소에서는 기술자들의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설계를 완성한데 이어 온실건설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사업소에서는 온실을 특색있게 건설하여 겨울철에 읍지구의 전쟁로병들과 영예군인세대들에 오이를 비롯한 푸르싱싱한 남새를 보내주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사업소에 꾸려진 버섯생산기지와 돼지, 오리, 닭, 토끼를 비롯한 많은 집짐승을 기를수 있게 건설해놓은 축산기지에도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슴배여있다.

오늘도 사업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당창건 65돐을 높은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한마음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혁신을 창조해가고있다.

본사기자 서 승 호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전승절경축음악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만수대예술단과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전승절경축음악회가 27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국가간부들과 우당위원장,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음악회를 관람하였다.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해외동포들과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 무관들, 국제기구대표들, 외국손님들이 음악회를 보았다.

승리자의 크나큰 긍지와 환희가 넘쳐나는 음악회장에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전설적영웅이시며 강철의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더해주며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우리의 7.27》이 울려퍼지였다.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지략과 세련된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짓부셔버리고 조국과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하는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남성독창 《전호속의 나의 노래》, 관현악 《아무도 몰라》, 녀성민요독창 《직동령의 승리방아》, 교향곡 《내 고향의 정든 집》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으며 전시생산과 전선원호에 떨쳐나 용감히 싸운 우리 인민군군인들과 인민들의 백절불굴의 정신과 위훈을 잘 보여주었다.

희세의 천출명장을 모신 군대와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한다는 철의 진리를 새겨주며 장내를 진감시킨 관현악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전선에서 만나자》, 혼성5중창 《축배를 들자》, 합창 《명령만 내리시라》 등은 관람자들이 백두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승리의 7.27은 영원하리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지게 하였다.

1950년대 수령결사옹위정신, 조국수호정신이 맥박치고 영웅조선의 기상이 나래치는 음악회는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선군령도따라 반미대결전에서 최후승리를 이룩하고 조국땅우에 강성대국선포의 승전고를 높이 울려갈 열의에 충만되여 있었다.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각지에서 진행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27일 각지에서 진행되였다.

4.25문화회관, 개선문, 평양체육관광장을 비롯한 수도의 무도회장들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조선의 기상을 만방에 떨치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승리의 7.27을 맞이한 기쁨을 안고 모여온 청년학생들로 흥성이였다.

전승의 그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천만군민이 열렬한 환호성을 터치던 감격과 환희가 그대로 차넘치는 무도회장들에 《김일성대원수만만세》의 노래가 우렁차게 울려퍼지였다.

청년학생들은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법, 탁월한 지략과 령군술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높이 떨쳐주시고 반제혁명전쟁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신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되새기며 경축의 춤바다를 펼쳐놓았다.

《우리의 7.27》, 《어데가나 잊지 말자 우리의 수령》 등의 노래선률에 맞추어 춤물결을 일으켜나가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반미대전의 승리를 이룩한 영웅적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이 한껏 어려있었다.

무도회장들에 《우리 장군님 제일이야》, 《장군님 축지법 쓰신다》의 노래가 울려퍼지자 청년학생들은 독창적인 선군정치로 공화국의 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가슴들 먹이며 아름다운 춤물결을 이어나갔다.

경쾌하고 박력있는 노래선률에 맞추어 참가자들은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를 받들고 어버이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백절불굴의 신념과 강인담대한 의지, 드센 배짱을 지니시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의 분출인양 《우리의 노래는 승리의 노래》, 《선군닐리리》의 노래선률이 울려퍼져 무도회분위기는 더욱 고조되였다.

《우리 장군님 받들자》,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통일 6.15》의 노래소리가 진감하고 기백있는 춤률동으로 설레이는 무도회장들에는 전화의 청춘들처럼 경애하는 장군님을 한목숨바쳐 보위하는 성새, 방패가 되며 침략자들이 감히 덤벼든다면 영웅조선의 명예를 걸고 본때있게 싸워 원쑤들을 일격에 쓸어버리고야말 청년전위들의 억센 기상이 세차게 굽이쳤다.

이날 평성, 강계, 함흥, 원산 등 각지에서도 전승절을 경축하는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있었다.

경축무도회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령도따라 혁명의 수뇌부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전승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나감으로써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청년학생들의 굳은 각오와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27일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였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수도의 공연장소들은 높은 정치적열의와 커다란 로력적성과로 날과 달을 빛내이며 조선로동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마중해가는 력사적인 시기에 전승절을 맞이한 천만군민의 감격과 환희가 넘쳐흐르고 있었다.

윤이상음악연구소 관현악단 예술인들은 윤이상음악당에서 경축음악회를 열었다.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로 막이 오른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바이올린2중주 《우리 님 영웅되셨네》, 바이올린합주 《장군님의 군대가 되자》, 녀성독창 《붉은 철령》, 혼성3중창 《우리의 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령군술, 독창적인 전법으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빛나게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선군의 위력으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련전련승을 이룩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청년중앙회관에 펼쳐진 국립민족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무대에는 남성독창 《열룩소야 어서 가자》, 녀성6중창 《매봉산의 노래》 등의 전시가요들에 이어 가야금병창 《비날론삼천리》, 합창 《강성대국이 보인다》를 비롯한 선군시대 찬가들이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 세대를 이어 떨쳐가는 승리자의 영예와 긍지를 새겨주며 울려퍼졌다.

합창 《양산도》, 녀성3중창과 합창 《도라지》, 무용 《봄맞이처녀들》, 가무 《아름다운 고향》 등 고상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를 담은 이채로운 종목들도 관중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주었다.

평양교예단 예술인들은 최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공연하여 그이께 큰 기쁨을 드린 특색있는 교예종목들로 경축무대를 장식하였다.

체력교예 《다각비행》, 《그네와 널뛰기》, 《중심조형》, 《힘재주》, 수중교예 《집체조형》, 희극교예 《두 동무》, 《망상》, 동물교예 《곰줄넘기》, 《말타기》를 비롯한 종목들은 조선로동당의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웅적기상과 랑만에 넘친 생활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한편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예술공연으로 전승절을 경축하였다.

함경북도예술단 예술인들은 녀성독창과 합창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남성5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 혼성2중창과 합창 《승리자의 선언》을 비롯한 종목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여 승리의 력사와 전통은 영원하리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혜산광장에서 있은 종합공연 《승리자의 노래》와 평산군에서 열린 황해북도 농업근로자들의 전승음악회 《우리의 승리의 7.27을 쌀로써 길이 빛내여가리라》, 신의주시 녀맹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경축공연 《승리의 7.27은 영원하리라!》도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인민생활대고조의 불바람을 거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근로자들의 전투적사기와 랑만을 북돋아주었다.

경축공연들을 보면서 각지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선군조선의 필승불패의 기상을 힘있게 떨쳐갈 열의에 넘쳐있었다.

주조무관단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화환과 꽃바구니 진정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27일 대성산혁명렬사릉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에 화환과 꽃바구니를 진정하였다.

혁명렬사릉과 기념탑에는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무관단의 명의로 된 화환이 혁명렬사릉 화환진정대에, 꽃바구니가 기념탑중심주제 《승리》 상앞에 진정되였다.

화환과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혁명렬사들에게 영광이 있으라!》,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무관단성원들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의 해방과 사회주의건설,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운 혁명렬사들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그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 혁명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한 영웅적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였다.

무관단성원들은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모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그이를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우리 나라 대표단 접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쭘말리 싸이냐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이 26일 주석부에서 라오스를 방문하고있는 박의춘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석상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쭘말리 싸이냐쏜주석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대표단단장이 전하였다.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주석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자신의 가장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표단단장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존경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조국보위와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조선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반드시 열어제끼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카이손 폼비한 주석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라오스와 조선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를 마련하여주시였다고 하면서 라오스는 이 관계를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다고 말하였다.

라오스는 앞으로도 두 나라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그는 확언하였다.

여기에는 통룬 씨쑤릿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 주석부와 외무성 일군들,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한편 이날 부아쏜 붑파완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수상이 정부수상실에서 박의춘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라오스외무성 일군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참가하였다.

석상에서 수상은 두 나라사이의 전통적인 친선관계는 존경하는 쭘말리 싸이냐쏜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총비서동지의 관심속에 끊임없이 강화발전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총비서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은 라오스인민을 크게 고무하고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공동의 관심속에 라오스와 조선사이의 경제협조관계가 확대발전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라오스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 통일을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 외무상과 라오스외무상 회담

라오스를 방문하고있는 박의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상과 통룬 씨쑤릿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부수상 겸 외무상의 회담이 26일 외무성청사에서 진행되였다.

회담에는 우리측에서 외무상 일행과 라오스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상대측에서 외무성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자기 나라 정세를 통보하고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해서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회담은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백두산지구 답사, 여러곳 참관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가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답사하였다.

백두산밀영고향집을 방문한 그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항일대전의 총포성을 자장가로 들으시며 성장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는 삼지연대기념비,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과 사자봉밀영, 신사동혁명전적지, 무포, 청봉, 베개봉숙영지, 리명수혁명사적지 등을 돌아보았다.

목사는 삼지연군과 대홍단군을 참관하였다.

그는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을 건축형식에 담은 백두관과 삼지연학생소년궁전, 감자꽃바다가 펼쳐진 대홍단군 창평농장, 대홍단감자가공공장 등을 돌아보았으며 삼지연군 근로자들과 상봉하였다.

한편 목사는 신천박물관과 창덕학교 등을 참관하였으며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 문학예술분과위원회 성원들을 만났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통일인사 한상렬목사 민족의 성산 백두산 답사

선군혁명령도업적교양을 짜고들어

함흥약학대학에서

함흥약학대학 교정에 수령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이 힘있게 울려퍼진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헤쳐가시는 선군혁명령도의 천만리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보폭을 맞추며 교육의 질과 학과실력제고에서 일대 비약의 폭풍을 안아올 굳센 의지와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여있는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다.

그들속에는 인민군대원호사업을 성심성의로 잘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부학장 량덕수동무를 비롯한 교원, 연구사들과 불멸의 꽃 김일성화, 김정일화가꾸기에 깨끗한 마음을 바쳐 도에서 진행된 전시회들에서 대학이 높은 평가를 받게 한 교원 조승남, 직원 김승전, 학생들인 주화철, 김금혁, 전진향동무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교직원,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선군시대의 참된 교육자, 믿음직한 선군혁명전위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대학초급당위원회가 사상교양사업에서 중심으로 틀어쥔 문제이다.

대학에서는 대중의 정신력을 최대로 폭발시켜 교육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 교양에서 찾고 여기에 사상교양사업의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학부당조직들에서는 우리 당의 선군사상, 선군정치의 본질과 원칙을 비롯한 원리적인 문제들을 인식시키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의 위대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사업을 학습담화, 문답식학습경연, 참관, 상봉모임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고있다.

실장 김광혁,강좌장 박영철, 교원들인 김동근, 김경수동무를 비롯하여 이곳 교직원들과 학생들속에서는 인민군대원호기풍이 꽉 차넘치고 충실성의 아름다운 소행들이 수많이 발휘되고있다.

대학일군들은 성과가 클수록 선군령도업적교양사업에서 보다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탐구하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에게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헤쳐가시는 머나먼 선군장정의 길에서 쌓으신 고귀한 업적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체계화되여있는 부피두터운 선군사상학습장이 있다. 그 실효는 참으로 크다. 선군사상학습장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다니며 선군사상학습을 생활화할수 있어 좋을뿐아니라 학습토론과 해설모임, 학습경연은 물론 교수의 당정책화실현에서도 매우 실용적이다.

대학에서 선군령도업적교양이 심도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선군사상학습장을 만들게 된데는 사연이 있었다.

어느 한 학부에 내려갔던 초급일군은 몇몇 초급일군들을 만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최근시기 쌓으신 선군령도업적자료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학습담화를 한적이 있었다. 기대에 비하여 인식정도가 그리 원만하지 못하였다. 학생초급일군들의 실태도 별반 차이가 없었다.

만민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는 대를 두고 길이 전해야 할 친출명장의 위대한 선군혁명일록을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 어떻게 하면 깊이 심어줄수 있겠는가.

그날 초급당일군은 대학일군들과 마주앉아 자기가 느낀 점을 이야기하였다. 선군령도업적교양을 보다 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교양형식과 방법을 찾아나갔다. 그중의 하나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자료를 담은 학습장을 따로 만들어 교직원, 학생들이 선군사상학습에 리용하게 하자는것이였다.

선군사상학습장을 만든다는 소식은 교직원, 학생들을 저으기 흥분시켰다. 선군사상학습에 필요한 자료수집에 모두가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온 교정이 선군령도학습열의로 들끓었다. 어느 강좌, 교실에서나 선군사상, 선군정치에 대한 문제를 놓고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을 활발히 벌리는 교직원,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대학적인 범위에서 학술토론회도 진행하고 문학작품창작경연도 조직하였다. 이 과정에 선군사상학습장집필에 좋은 방안들과 자료들이 수많이 수집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대학에서는 모든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학습장의 첫페지에 위대한 선군령장의 령도의 발자취가 아로새겨진 단위들을 날자별로 적어놓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자신의 심장의 박동을 맞추어보며 한주간 사업과 생활을 돌이켜보게 하였다.

이렇듯 참신하게 진행되는 선군령도업적교양을 통하여 교직원, 학생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이 얼마나 고귀한것이며 그 업적으로 하여 우리 조국이 빛나고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는 철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다. 이것은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서 선군시대 교육자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였다.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뭇새들이 우짖는 수림화된 교정,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그쯘하게 꾸려진 실험실습실들, 전국적인 범위에서 진행된 경연과시회들에서 받은 높은 평가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좋은 수많은 연구성과들, 한해동안에 40여명의 학위학직소유자, 10월8일모범교수자 배출…

교정에 날마다 전해지는 자랑찬 교육성과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과 뜻도 숨결도 함께 하려는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간직된 드놀지 않는 충실성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교정에 힘차게 울려퍼지는 수령결사옹위의 우렁찬 함성, 그것은 그 어떤 역풍이 불어와도 동요없이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는 선군혁명령도를 끝까지 충직하게 받들려는 함흥약학대학만이 아닌 온 나라 교육부문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의 드놀지 않는 철석의 맹세가 되여 교정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쳐가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은납 백성근

웰남농민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웰남농민동맹대표단 만경대 방문

웰 꾸옥 끄엉 농민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농민동맹대표단이 27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추녀낮은 초가집에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 나라찾을 큰뜻을 키우시고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데 대하여서와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만경대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참관하였으며 평양교예극장에서 종합교예공연을 관람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제25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 진행

【원산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제25차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입소식이 27일에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대원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일장군님 고맙습니다》, 《제25차 송도원국제소년야영에 참가한 세계 여러 나라 야영생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등의 구호들이 입소식장에 나붙어 있었다.

입소식에는 길철혁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비서, 김명철 강원도인민위원회 사무장, 관계부문 일군들, 중국, 로씨야, 탄자니아와 우리 나라 야영단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먼저 야영소에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에 꽃바구니와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야영기발이 게양되고 《국제친선야영의 노래》가 주악되였다.

입소식에서는 축하발언과 보고, 토론들이 있었다.

야영기간 야영생들은 해양체육과 유희오락, 《민족의 날》 등 다채로운 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친선의 뉴대를 두터이 하게 된다.

핵전쟁광신자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자

전쟁의 근원을 하루빨리 들어내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지난 7월 25일부터 조선동해에서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 해상련합훈련은 극히 도발적인 불장난소동으로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분노와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에 따른 그 무슨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무력시위》의 성격을 띠고 감행되고있는 이번 전쟁연습은 남조선미국 해상련합훈련사상 최대규모인것으로 하여 그 엄중성은 실로 간과할수 없다.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 8 000여명, 미제 7함대 소속 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핵잠수함 등 20여척의 각종 함선, 《F-22A랩터》전투기를 비롯한 수백대의 비행기 등 최첨단전쟁장비들이 동원된 가운데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도발적인 전쟁연습소동이 광란적으로 벌어짐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심히 위협당하고 전쟁위험이 극도로 증대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전광들은 해상련합훈련을 그 누구의 《도발에 대처한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고 정당화하는 한편 이 훈련에 이어 년말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대잠수함훈련 등 10여차례의 전쟁연습을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지속적으로 벌릴것이라고 떠벌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모험적인 전쟁연습소동은 변함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과 북침야망의 발로로서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직접대화와 협상을 재개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에도 배치된다. 남조선괴뢰들은 내외여론에 도전하여 미국과 함께 도발적인 해상련합훈련을 감행함으로써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북침전쟁광신자로서의 저들의 호전적 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았다.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는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의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조성된 사태는 현시기 조선반도에서 내외호전세력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전쟁의 근원을 들어내며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것을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요구이며 시대적과제이다.

우리 겨레는 누구나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사라지고 공고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고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우리 겨레의 운명과 민족의 생존터전을 지키고 조국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사활적인 문제이다. 그것은 주변지역의 안전과도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이미 전쟁의 재난을 당하고 반세기가 넘는 오랜 세월 항시적으로 전쟁위험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평화보다 귀중한것은 없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지속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 정신적 및 물질적피해는 이루 헤아릴수 없으며 그것은 날로 증대되여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엄중히 저해하고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평화를 이룩하고 발전과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아직도 항시적인 전쟁위험속에서 시달리며 고통을 당하고있는것은 커다란 민족적수치이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야 할 6.15통일시대에 평화보장은 필수적이다. 력사적경험은 평화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고 조국통일운동도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6.15통일시대가 전진할수록 평화에 대한 우리 겨레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다.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서로 자유로이 오가며 신뢰를 쌓고 협력을 활성화하며 단합하자고 해도 평화는 반드시 보장되여야 한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날로 엄중해지는 오늘의 정세는 전쟁근원의 제거와 평화보장을 초미의 과제로 제기하고있다.

조선반도는 반세기이상이나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다. 하지만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이 지금처럼 고조된적은 일찌기 없었다. 남조선에서 미국과의 침략《동맹》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친미보수적인 리명박《정권》이 출현하고 북침전쟁도발소동이 강화됨으로써 조선반도정세는 시종 악화되여왔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조작날조한 《천안》호침몰사건은 조선반도정세를 위험계선을 넘는 일촉즉발의 초긴장상태에 몰아넣었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이 이번에 벌려놓은 사상최대규모의 해상련합훈련은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핵전쟁을 기어이 도발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기도의 발로이다.

현시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수 있는 그 어떤 법적담보도 없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내외호전세력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조선정전협정은 이미 유명무실해졌으며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북남공동선언말살책동으로 하여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모든 북남합의들이 백지화되고 대결시대에로차 진행되던 북과 남사이의 대화와 협력마저 차단되였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제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교의적이며 계획적인 음모책동이 빚어낸 후과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문제도 옳바로 해결할수 없다. 군사적대결과 긴장이 지속되고 어느때, 어느 시각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첨예한 환경속에서 조선반도비핵화는 물론 대화와 협력, 교류도 제대로 진행될수 없다. 평화보장문제야말로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현실적문제이다.

조선반도평화를 파괴하는 주되는 근원은 미국의 변함없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이다.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할 지금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유지해야 할 그 어떤 리유도 명분도 없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군사적대결과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북침전쟁위험을 몰아오는 범죄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반세기이상 지속되고있는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군사적긴장과 전쟁발발의 근원으로 되고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꿈으로써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는 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가장 현실적인 위험요소이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며 전쟁위험을 조성하는 무모한 북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증강책동은 무조건 중지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 민족의 투쟁에 달려있다. 전체 조선민족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짓부시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활짝 열어나가야 할것이다.

송 영 석

《방어훈련》이 아니라 공격훈련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이번 해상련합훈련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느니, 《방어적인 훈련》이라느니 하면서 그의 침략적성격을 가리우기 위해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것은 내외의 규탄을 모면하기 위한 기만적인 나발이다.

미국과 괴뢰호전세력이 감행하고있는 해상련합훈련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목적으로 한것이다. 이번 불장난소동의 침략적성격은 그 규모와 내용에서 뚜렷이 드러나고있다.

이번 전쟁연습에는 작전반경이 1 000㎞에 달하는 미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많은 표적을 동시에 람지, 추적한다는 이지스함, 토마호크순항미싸일 150여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항공모함전단과 《F-22A랩터》를 비롯한 200대이상의 전투기 그리고 8 000여명에 달하는 병력이 동원되고있다. 이것은 내외여론들이 평하다싶이 남조선과 미국이 야합하여 벌리는 해상련합훈련으로서는 사상 최대규모이다.

호전광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공을 가상하여 공중과 해상, 수중에서 대잠수함훈련과 기동훈련, 실탄사격훈련 등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다. 항공모함전단의 주축인 《죠지 워싱톤》호는 수십대의 전투기들을 탑재하고 많은 전투함선들을 거느린것으로 하여 일명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우고있다. 이런 방대한 공격무력이 동원된 이번 전쟁연습을 아무리 《방어훈련》이라고 광고해도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특히 이번 전쟁연습에는 괴뢰군의 《F-15K》, 《KF-16》 전투기와 함께 미제침략군의 최신형전투기 《F-22A랩터》까지 참가하고있다. 《F-22A랩터》 전투기가 조선반도에 전개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미호전광들이 이른바 《5세대 전투기》라고 떠벌이는 《F-22A랩터》는 작전반경이 1 800㎞에 달하는것으로서 주일미군기지에서 출격하여 레이다에 걸리지 않고 30분만에 우리의 주요대상을 타격할수 있다고 한다.

남조선호전광들은 《F-22A랩터》의 전쟁연습참가가 《북에 가장 큰 압박이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면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는 범죄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번 훈련에서는 대잠수함훈련, 실탄사격훈련과 함께 미국 싸이버사령부가 동원된 싸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훈련도 진행되고있다. 이것은 내외호전광들이 떠벌이는 《방어》타령이 새빨간 거짓이라는것을 낱낱이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이번 전쟁연습을 앞두고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은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돌아치며 미제침략군 사병들앞에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하였으며 비무장지대에까지 나가 망원경으로 우리측 지역을 한참동안이나 노려보았다. 이것은 신통히도 지난 조선전쟁도발을 앞두고 덜레스가 군사분계선일대를 돌아치며 전쟁열을 고취하던 1950년대의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였다.

괴뢰국방장관 김태영역도는 해상련합훈련을 벌리기에 앞서 미국방장관을 만나 남조선미국《동맹》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느니 뭐니 하고 역겨운 추태를 부리면서 외세와의 전쟁《공조》를 강화할 범죄적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이 모의판에서 《핵우산제공을 통한 안보체제구축》에 대하여 떠벌이며 앞으로 3개월간 동해와 서해 등에서 각종 명목의 합동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번 불장난소동이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전쟁연습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해상련합훈련은 명백히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이며 새 전쟁도발의 서곡이다. 그들이 이번 불장난소동을 두고 그 무슨 《방어》에 대해 요란하게 떠들고있지만 그 어떤 나발로도 저들의 호전적이며 침략적인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은 정 철

고조되는 반전투쟁열기

남조선괴뢰들은 미국과의 해상련합훈련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들이 군사훈련을 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느니, 해상련합훈련이 과거에도 실시한바 있는 《정례적인 훈련》이라느니 하면서 미제 7함대 소속 초대형핵항공모함 《죠지 워싱톤》호와 최신예전투기 《F-22A랩터》편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였다. 이러한 속에 조선동해상에서 감행되고있는 해상련합훈련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를 유린하고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동이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해상무력은 물론 공군무력까지 참가한 이번 해상련합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이른바 《초대형무력시위성격의 압박조치》로서 그 위험성에 있어서 종전의 합동군사연습들을 훨씬 릉가하는 극히 도발적인 침략전쟁불장난이다. 남조선 각계는 보수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북침을 노린 해상련합훈련을 강행해나선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있다.

지난 21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진보련대, 6.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 민주로동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 정당성원들은 서울의 《정부》종합청사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미국과 괴뢰당국의 해상련합훈련을 한목소리로 단죄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의 군부인물들이 해상련합훈련을 《방어연습》이라고 정당화하지만 초대형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이 수많이 동원된 이번 연습은 분명 공격연습이라고 폭로하면서 이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서 군사적긴장과 충돌위험성이 한층 높아가고 평화가 엄중히 위협당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어 남조선의 경기진보련대, 민주로총 경기본부를 비롯한 경기도지역의 각계 단체들도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합동군사연습책동을 반대해나섰다.

단체들은 성명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조선동해에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 하고있다고 하면서 《합동조사단》이 내놓은 함선침몰관련 《결정적증거》들이 모두 부정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이 함선침몰을 《북의 소행》으로 몰아대며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에 나서고있다고 분노를 터치였다.

성명은 미국의 방대한 침략무력이 남조선에 집결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에서의 전면전쟁발발을 예고하는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 아닐수 없다고 하면서 북침을 노린 합동군사연습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당국이 상전과 야합하여 무분별한 침략《동맹》강화책동에 매달리고있는데 대해 규탄하는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구실로 위험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는것은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괴뢰패당이 미국과 함께 감행하고있는 해상련합훈련의 침략적목적을 똑똑히 꿰뚫어보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반전평화투쟁은 침략과 전쟁을 반대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서 지극히 정당하다.

본사기자 복 은 희

긴장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는 흉계

남조선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조선동해상에서 벌려놓은 해상련합훈련은 우리 공화국을 해상과 공중에서 기습선제타격하기 위한 매우 도발적인 핵전쟁연습으로서 우리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위협이며 북침전쟁도발의 전주곡이다.

스쳐지날수 없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이 그 무슨 《동맹군사능력강화》니, 《무력시위》니 하며 이번 해상련합훈련에 그치지 않고 미국과 함께 장기적으로 강도높은 합동군사연습들을 계속 진행하기로 한것이다.

괴뢰호전광들은 해상련합훈련에 이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과 대잠수함훈련을 비롯한 10여차례의 합동군사연습을 지속적으로 벌릴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여기에 심중한 문제가 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진행된 남조선미국 《외교국방장관회담》에서 전쟁연습들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였다.

괴뢰들은 8월 16일부터 26일까지 미제침략군과 함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벌리려고 피하고있다.

그 무슨 《동맹능력향상》이라는 명목밑에 종합적인 훈련형식으로 진행되는 이 전쟁연습에는 해외주둔 미군 3 000여명을 포함한 3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참가하게 된다. 지난 시기 이 전쟁연습에 1만명정도의 미제침략군이 참가한것을 고려할 때 이 전쟁연습의 규모가 얼마나 확대되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다.

내외호전광들은 올해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에 대해 《북의 〈천안〉호공격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이라고 광고하면서 연습을 통해 그 무슨 《도발가능성》에 대처할수 있는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게 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이것은 미국과 괴뢰들이 모략적인 함선침몰사건을 우리 공화국에 군사적압력을 가하고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데 계속 악용하면서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직전의 위험국면으로 더욱 바싹 몰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뿐이 아니다. 이 전쟁연습과 함께 조선서해에서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련합반잠훈련이 계획되여있으며 이어 여러가지 해상련합훈련이 련속 벌어지게 된다. 한마디로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이번 해상련합훈련을 시발점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모험적인 전쟁연습소동들을 끊임없이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이것은 전례없는 사태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미국과 야합하여 해상련합훈련을 벌려놓은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해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대한 용납 못할 도전이다. 이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괴뢰들이 북침을 가상한 도발적인 전쟁연습들을 련이어 감행하려는것은 긴장완화의 기운을 북침의 총포성으로 계속 억누르며 임의의 시각에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위험천만한 기도의 발로이다.

지금 내외여론은 미국과 리명박괴뢰당의 호전적망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상태가 하루빨리 가셔지고 대화와 평화의 국면이 조성되기를 바라고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발표된 의장성명도 그것을 요구하고있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대화와 평화를 주장하는 내외여론의 목소리에 귀를 틀어막고 현 긴장상태를 언제까지나 유지하며 기회를 보아 그것을 북침전면전쟁에로 이어가려고 발악하고있다.

현실은 외세에 명줄을 걸고 핵전쟁도발책동에 악랄하게 매여달리는 리명박괴뢰당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매국노이며 극악한 전쟁광신자라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의 력대 괴뢰통치배들치고 반공화국대결과 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지 않은자가 없었지만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함선침몰사건과 같은 특대형모략극까지 꾸며내고 그것을 악용하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그처럼 피눈이 되여 날뛴 호전광무리는 찾아볼수 없다.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미제와 괴뢰호전광들의 전쟁광기는 이미 위험계선을 넘어섰으며 그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극도로 악화되고있다.

우리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외호전세력에 의해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이 밀려오고있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나라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적들의 도발에는 무자비한 징벌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불을 즐기는 부나비는 불에 타죽기마련이다. 만일 내외호전광들이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감히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무주고혼의 신세를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향 미

호전광들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이 극히 모험적인 단계에서 발광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지금 미국과 괴뢰들은 그 무슨 《대북억제력과시》와 《무력시위》를 떠들면서 핵항공모함을 비롯한 최신전쟁장비들을 동원하여 25일부터 조선동해에서 최대규모의 북침련합해상훈련을 강행하고있으며 8월 중순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진행하는 등 년말까지 련이어 해상과 공중, 지상에서 북침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려 하고있다.

한편 미국과 괴뢰패당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결의안》조작놀음이 파탄되자 서울에서 《외교국방장관회담》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우리를 반대하는 새로운 음모를 꾸민데 기초하여 그 무슨 《단독제재》와 전쟁연습계획을 운운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더욱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이것은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도발이며 평화애호적인 내외여론에 대한 횡포한 도전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벌려놓은 이번 《외교국방장관회담》과 위험천만한 북침전쟁소동에 온 민족과 함께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면서 그것을 조선반도에서 전면전쟁의 불집을 기어이 터뜨리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로 준렬히 규탄단죄한다.

미국남조선 《외교국방장관회담》은 유엔무대에서 당한 참패와 망신을 앙갚음하고 만회해보려는 추악한 정치막간극으로서 함선침몰사건에 대한 모략대결소동을 어떻게 하나 정당화하고 정세를 격화시켜 극단적사태로 몰아가려는 흉심을 그대로 드러낸것이다.

특히 미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군사분계선 최전방지대와 판문점 중앙분리선에까지 나와 돌아친것은 전례없는 일로서 지난 조선전쟁전야에 있은 미국방성과 국무성우두머리들의 서울행각과 미대통령특사 덜레스의 38°선시찰을 방불케 하는 극히 위험한 전쟁전주곡이 아닐수 없다.

미국과 괴뢰들의 모든 움직임은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계획이 외교와 군사적견지에서 최종검토가 끝나고 실전행동에 들어가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문제의 괴뢰함선침몰사건으로 말하면 아직 진상이 해명되지 못하여 유엔에서조차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데 대한 의사표시가 되고 조미사이에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 현지파견문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괴뢰들이 함선침몰사건을 우리와 련결시켜 그 무슨 《제재》니, 《응징》이니 하는 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저들이야말로 유엔도 내외여론도 안중에 없는 안하무인, 불법무법의 불량배집단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낸것이다.

지금 미국과 괴뢰들은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소동에 일본반동들을 끌어들여 미국, 일본, 남조선사이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이번 련합해상훈련에 일본《자위대》까지 《참관》의 명목밑에 참가시키는 등으로 《3각군사동맹》을 현실화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제반 사실은 괴뢰함선침몰사건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북침전쟁구실을 마련하며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의 지배력유지확대와 침략적군사 《동맹》 구축을 위해 날조한 특대형모략극이라는것을 더욱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미국과 괴뢰들이 동해든 서해든 조선반도해역의 그 어디에서건 불질을 하면 그 불찌는 조선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전지역에 뛰여 될것이며 그것은 급기야 새로운 대전으로 번져지게 될것이다.

미국과 괴뢰들이 《무력시위》니, 《경고》니 하며 그 누구를 놀래워보려 하지만 그에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우리 인민이다.

《힘》은 힘으로, 《제재》는 제재로 짓뭉개놓는것이 우리의 기질이고 본때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이미 천명한대로 적들의 《억제력과시》에 선군으로 다져진 더 크고 더 무서운 억제력으로 단호히 대응할것이다.

리명박괴뢰당은 남조선민심을 쫄딱 잃고 미국에 매달려 명줄을 부지해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자멸을 더욱 촉진하는것으로 될뿐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으로 얻을것이란 수치와 비참한 참패밖에 없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주체99(2010)년 7월 27일
평 양

민주세력에 대한 파쇼탄압을 중지하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성명발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20일 《줄기찬 투쟁으로 공안탄압의 고리를 끊자》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일 대구지방경찰청소속 《보안수사대》가 《보안법》위반혐의로 범민련 대구경북련합 사무국장 오택진의 집을 강제수색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또한 파쇼당국이 범청학련 남측본부 인터네트홈페지를 폐쇄하고 진보련대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옥과 이전 정책위원장 정대연에 대한 구속령장을 재청구하는 등 탄압을 강화하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성명은 리명박괴뢰당이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하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시대착오적인 탄압에 계속 미쳐날뛰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리명박괴뢰당의 광란적인 공안탄압을 온 겨레의 이름으로 준렬히 규탄하며 투쟁의 기세를 더욱 높여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그 어떤 폭압도 민족의 통일기운을 절대로 억누를수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광범한 민중이 줄기찬 투쟁을 벌려 리명박괴뢰당의 파쇼탄압을 저지파탄시키자고 호소하였다.

실형선고

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23일 괴뢰대법원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 성원 김성일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괴뢰패당은 실천련대에서의 그의 활동을 《리적행위》라고 몰아대면서 그에게 징역 2년형을 들씌웠다.

괴뢰패당은 또한 실천련대가 《북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고있다.》고 하면서 《리적단체》판결을 내리는 파쇼폭거를 감행하였다.

독재《정권》유지를 위한 파쇼적폭거

조윤해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본부 의장이 22일 남조선의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리명박역적괴뢰당의 파쇼적탄압책동을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최근 남조선괴뢰집권세력이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을 광란적으로 벌리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얼마전 괴뢰패당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한충목을 비롯한 진보련대의 핵심관계자들이 《북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워 사무실과 집들을 압수수색하고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체포, 구속하는 파쇼적폭거를 감행하였다고 담화는 단죄하였다.

담화는 또한 역적괴뢰당이 괴뢰당국의 함선침몰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의혹과 재조사를 주장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낸 참여련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서도 《리적반역행위》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범민련 독립국가협동체지역동포들은 리명박괴뢰당의 탄압책동을 북남공동선언들의 리행과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념원에 대한 극악한 도전으로, 독재 《정권》 유지를 위한 파쇼적폭거로 락인하고 이를 강력히 단죄규탄한다고 담화는 밝혔다.

담화는 리명박역적괴뢰당이 그 어떤 회유와 공갈로써도 민중의 지향과 힘을 막을수 없다는 진리를 똑똑히 명심하고 진보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당장 걷어치울것을 요구하였다.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소동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로씨야고통련)가 20일 《남조선당국은 6.15지지 민주세력에 대한 파쇼적탄압을 중지하고 반공화국대결정책을 버려야 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의 반통일, 반공화국대결광증이 《천안》호침몰사건조작에 이어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민주세력에 대한 로골적인 탄압소동으로 번져지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성명은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정치인이건 종교인이건 경제인이건 관계없이 각종 모략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탄압의 대상으로 되는것이 오늘의 남조선현실이라고 지적하였다.

남조선당국이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여 《지방자치제선거》에 리용하려다가 《〈한나라당〉호가 침몰》하는 결과를 초래한것도 부족하여 민주세력에 대한 전면탄압에 매달리며 최후발악하고있다고 단죄하고 성명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7.28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다시한번 리명박괴뢰당에게 응당한 심판을 내려야 할것이다.

력사는 민심을 외면하고 외세에 굴종하며 민족반역죄를 지은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떠하였는가를 똑똑히 기록하고있다.

로씨야고통련은 더욱더 무분별해지고있는 남조선당국의 반통일, 반민주, 반공화국대결책동을 준렬히 규탄한다.

로씨야고통련은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을 비롯한 민주세력의 6.15공동선언실천활동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본사기자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주장

【평양 7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정전협정체결 57돐에 즈음하여 재미동포청년들이 22일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모임을 가지고 조선반도평화협정체결을 주장하였다.

모임에서 발언자들은 정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57년이 되였지만 아직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끌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전쟁으로 인한 참혹한 비극의 력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끌장내기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시급히 바꾸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지난 전쟁시기 무고한 조선사람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혈육들이 생리별당하였으며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남조선에 수많은 침략군사기지들을 만들어놓고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북침핵선제공격계획들로 조선반도정세를 위험천만한 전쟁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

그들은 워싱톤, 뉴욕, 로스안젤스 등 5개 도시에서 전쟁을 끌장내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촉구운동이 전개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동포청년들도 힘을 합쳐 적극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강철의 령장

공 동 성 명 발 표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 네팔위원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회고 네팔전국위원회, 네팔 아시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 선군정치지지협회, 기자협회, 전국기자구락부, 자력갱생연구회, 자력갱생연구 녀성위원회, 평화행동위원회가 14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 진보적 인민들은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있다.

네팔의 사회단체들과 친선및 련대성조직들, 기자들은 조선인민의 반미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며 자주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그들의 정의의 위업이 반드시 승리하리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미국이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국제적압박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군사적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조선문제가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킬데 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 결의에 따라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선의 통일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그리고 조국통일3대헌장에 기초하여 실현되여야 한다.

리명박역도가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은 후 조선반도정세는 전쟁접경에 이르고있으며 남조선의 《통일부》는 대결부로 변화되였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미국군대와 모든 핵무기를 철수시키며 조선반도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요구한다. 또한 조선을 둘로 갈라놓고있는 콩크리트장벽을 해체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민족대단결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폭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신 문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나이제리아와 메히꼬신문이 특집하고 기념글을 게재하였다.

나이제리아신문 《뉴 나이제리언》 13일부는 조선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진을 모시고 《조선, 승리의 7.27》이라는 표제밑에 여러 제목의 글들을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글들에서 창건된지 2년도 안되는 우리 공화국이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한데 대하여, 전후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도발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으나 참패만을 거듭한데 대하여 자료적으로 서술하였다.

지난해에도 세계는 미국과의 대결에서 조선인민의 승리를 직접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신문은 우리 인민이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 발사와 제2차 지하핵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대하여 전하고 《제재》에는 무자비한 보복으로, 《대결》에는 전면대결로 대답해나서는 조선의 초강경대응이 조미대결에서 또 하나의 빛나는 승리를 마련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신문 《우니다드 나씨오날》 15일부는 《60년전 조선전쟁의 발발》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였다.

신문은 글에서 제2차 세계대전후 가장 가렬처절한 전쟁이였던 조선전쟁이 일어난 때로부터 60년이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세계제패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조선을 강점하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전쟁도발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한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조선전쟁의 도발자인 미국의 진속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 시기부터 드러났다.

미국은 남조선의 곳곳에서 군용도로, 비행장, 군항건설을 다그쳤으며 무력증강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면공격을 실행할 북침작전계획이 완성된데 따라 38°선일대에는 수많은 공격진지들이 구축되고 모든 무력이 공격형으로 전개되였으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무장도발이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신문은 면밀한 준비밑에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드디여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고 하면서 미국이 전쟁개시날자를 일요일로 택한 목적 등을 까밝히고 60년전에 미국이 조선전쟁을 일으켰다는것은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신문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사진을 함께 편집하였다.

* *

6.25—7.27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네팔, 파키스탄신문이 글을 게재하였다.

네팔신문 《러허쎠》 15일부는 《김일성대원수》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일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로선을 제시하시여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심으로써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업적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파키스탄신문 《발루치스탄타임스》 18일부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반도에서 첨예한 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는것은 인구도 많지 않고 령토도 크지 않은 조선과 세계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이 장장 60여년간 대결하고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조선반도의 절반땅을 강점한 미국은 1950년 6월 25일 자기의 지배권을 전조선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하였다.

그러나 3년간의 전쟁에서 막대한 인적, 물적손실을 입은 미국은 부득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이 협정은 현재까지 존재하고있다.

정전협정은 말그대로 차후의 목적을 위해 일단 싸움을 중지할데 대한 협정이다.

실제로 조선반도에서는 전후 50여년간 언제 다시 전쟁의 불길이 치솟을지 알수 없는 위기상태가 끊임없이 지속되여왔다.

조선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 새롭고 공명정대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데 대한 제안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일관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막고 조미관계와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선차적이며 필수적인 문제이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할 하등의 리유가 없다.

더우기 조선반도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에서 조미사이에 서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쌍방관계를 정상화해나가기로 공약한 오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은 미국에 있어서 더는 회피할수 없는 문제이다.

조선정전협정은 시급히 평화협정으로 교체되여야 한다.

본사기자

3각군사동맹가동을 노린 위험한 불장난

미호전세력들이 전쟁연습을 계기로 범죄적인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에 광분하고있다. 그들이 조선동해에서 감행하고있는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일본해상《자위대》 장교들을 참가시키고있는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최근년간 《반테로》의 미명하에 미국과 일본이 벌린 합동군사연습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해상《자위대》가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일남조선의 3각군사동맹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며 그것이 엄연히 살아서 가동하고있다. 이번 전쟁연습이 이것을 보여준다. 바로 여기에 이번 련합해상훈련의 보다 큰 위험성과 엄중성이 있다.

국제사회는 미국과 남조선이 모략날조극을 연출한데 뒤이어 련합하여 조선동해에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문제시하면서 그것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런데 미호전세력들은 남조선피뢰들은 물론 일본반동들까지 끌어들여 이번 전쟁연습의 판을 더 크게 벌리는것으로 국제사회의 응당한 요구에 공공연히 도전해나서고있다.

가소로운것은 일본반동들이 남조선과 미국의 《요청》에 따라 《옵써버》자격으로 참가한다느니 뭐니 하고 이번 련합해상훈련참가명분을 세워보려고 구차스러운 변명을 늘어놓고있는것이다. 그들은 조선동해에서 벌어지고있는 련합해상훈련에 일본은 함선은 파견하지도 않고 연습에 직접 참가하지도 않는다는것, 다만 해상《자위대》장교들이 미해군의 《죠지 워싱톤》호에 탑승하여 훈련상황을 지켜본다는것이다.

도대체 일본《자위대》장교들이 무엇을 지켜본다는것인가. 미핵항공모함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수상, 수중핵타격수단들과 수백대의 전투기들을 비롯한 방대한 해, 공군무력이 투입된 이번 련합해상훈련은 《방어》와 《억제》의 간판밑에 모험적인 북침전쟁조법을 련마하는 무모한 불장난이다.

일본해상《자위대》 장교들이 그저 불구경하기 위해 미핵항공모함에 탑승한것이 아니라는것만은 명백하다.

일본반동들도 이번 전쟁연습에 저들이 참가하면 그것이 어떤 국제적물의를 자아내겠는가를 모르지 않는다. 정세가 예민한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연습에 저들이 코를 들이밀면 국제적으로 반발이 있을것이 틀림없다고 타산한 일본반동들은 《옵써버》, 《참관》의 명목으로 참가하면 헌법해석에 의해 금지되여있는 《집단적자위권》행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단밑에 이번 전쟁연습에 참가하고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반동들이 양대가리걸어놓고 말고기판다는 격으로 아무리 딴전을 부려도 그 검은 속심이야 어디에 감추겠는가. 일본 《도쿄신붕》은 《옵써버》라고 하지만 특정한 나라를 가상한 군사연습에 《자위대》가 참가하는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못박았다. 공정한 여론들은 일본해상《자위대》의 《참관단》이 훈련에 참가한것은 앞으로 일본《자위대》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미국은 이번 모략사건을 일본과 남조선을 더욱 단단히 틀어쥐고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형성을 다그치는데 리용하고있다. 랭전시기부터 추진되여온 3각군사동맹구축은 세계에 대한 미국의 지배야망과 아시아의 《맹주》가 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는 일본의 재침기도의 발로로서 그것은 오늘 더욱 본격화, 현실화되고있다. 랭전이 종식된 후에도 유럽지역에서 나토의 유지확대에서 재미를 본 미국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군사적간섭과 전쟁책동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미, 일, 남조선3각군사동맹체계를 강화하고있다. 미국은 3각군사동맹형성을 완성하여 일본과 남조선을 합법적으로 대조선침략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 하고있다.

한편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전략에 편승하는것으로써 해외팽창야망실현의 돌파구를 열려고 기도하고있다. 일본이 3각군사동맹구축에 발벗고나서는것은 상전의 눈에 들어 그의 지지비호밑에 《자위대》의 해외침략작전기능을 한층 더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의 《반테로전》에 대한 《협력》을 구실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어벌이 커져 못하는짓이 없다. 조선동해에서의 이번 미국남조선련합해상훈련에 일본은 해상《자위대》장교들을 《옵써버》와 《참관》의 외피를 씌워 참가시켰다면 앞으로 이번 일을 전례로 하여 《자위대》무력을 뻐젓이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들이밀려 하고있다.

미국이 추구하고있는것도 바로 이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에 일본반동들이 뛰여듦으로써 그들의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은 현실성을 띠고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되였다. 이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정세는 파국적인 전쟁국면에 접어들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안전과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려는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망동에 대해 결코 수수방관하지 않고 고도의 경계태세를 갖출것이다.

미국과 일본, 남조선호전세력이 야합하여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에 발광하는것은 그들자신의 파멸을 앞당기는 길이다.

적대세력들은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구축책동이 몰아올 엄중한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

리 현 도

《위대한 승리》

우리 인민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5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 《빠뜨리오뜨》 제27호가 《위대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념특집을 하였다.

신문은 조국해방전쟁승리를 경축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시였다. 신문은 글에서 57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천재적인 령장이시며 군사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선인민과 군대가 이룩한 승리는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대중을 모든것의 주인으로, 혁명과 새 력사창조의 주인으로 내세운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오한 과학적분석으로부터 제국주의침략을 예견하시고 짧은 기간에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태세를 갖추도록 령도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21세기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인민들의 평화적투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고계신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원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경험을 현명하고 창조적으로 발아들이신데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리론실천적유산을 발전풍부화하고계신다.

이것은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에서 구현되고있는 선군정치에서 발현되고있다. 조선인민은 선군정치를 《조선혁명의 강력한 보검》으로 부르고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군과 조선인민은 반일해방투쟁과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들의 승리의 계주봉을 영예롭게 계승하고있다.

김정일동지의 령도밑에 미래에로 전진하는 조선의 발걸음에서 혁명의 전세대들이 마련한 위대한 전통의 위력이 보다 강화되고있다는것을 느낄수 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는 이러한 전통계승의 력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신문은 계속하여 지난 조선전쟁이 세계제패를 위한 미제의 계획적이며 모략적인 책동에 의해 개시되였다고 하면서 미제야말로 조선침략전쟁을 도발한 범죄자이라는것을 구체적인 사실자료들을 들어 폭로하였다. 신문은 또한 미제침략자들이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야만성과 잔인성을 가지고 조선인민을 야수적으로 학살한데 대하여 신천에서의 그들의 귀축같은 만행자료들을 가지고 낱낱이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신문은 그러나 미제는 조선전쟁에서 쓰디쓴 참패를 당하고 정전협정문에 도장을 찍지 않으면 안되였다, 세계제국주의련강은 천재적인 장군이시며 전략가이신 김일성동지의 령도를 받는 영웅적조선인민앞에서 저들의 취약성을 인정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신문은 끝으로 위대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령도자이신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조선인민과 조선인민군의 영웅적투쟁에 의해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가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모스크바발 본사특파기자

핵계획을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가 19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나라의 평화적 핵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그 어떤 제재도 이란이 핵개발권리를 포기하도록 할수 없으며 그것은 오히려 이란의 핵개발결심을 더욱 굳게 해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이란인민은 나라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적들의 책동에 맞설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미 국 을 비 난

이전 말레이시아수상 마하디르 모하마드가 최근 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을 비난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결의가 채택된것은 미국이 사촉한 결과라고 하면서 그는 그렇게 한것은 이란을 약화시키고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까밝혔다.

그는 이라크전쟁전야에도 미국은 이와 같은 방법을 썼다고 하면서 미국이 또 다른 침략전쟁을 일으키는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부 당 한 정 책 단 죄

뽈럭불가담운동 의장국인 에짚트의 유엔주재 상임부대표가 21일 운동을 대표하여 유엔안보리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이스라엘의 부당한 정책을 단죄하였다.

그는 동부꾸드스에서의 유태인《정착촌》건설 등 팔레스티나령토에 대한 이스라엘당국의 식민지화정책을 비법적인것으로 락인하였다. 뽈럭불가담운동은 팔레스티나인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군사적공격행위와 봉쇄조치를 배격하며 이를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그는 밝혔다.

경 제 침 체

미국의 증권업체인 《골드맨쌔취스》 회사는 20일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4분기에 기업체에서 입은 손실액이 6억 1 300만US$에 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보다 앞서 19일 유럽동맹 통계국은 유로를 사용하는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5월에 건설부문 착공량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3% 떨어졌다고 밝혔다.

본사기자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물절약관개기술 도입

중국 감숙성에서 올해에 들어와 7월 중순현재까지 226만 4 100무의 농경지에 물절약관개기술을 도입하였다.

이것은 년간계획을 초과수행한것으로 된다.

성에서는 앞으로 3년동안 1 000만무의 면적에 물절약관개체계를 실현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계획이 실현되면 많은 량의 물을 절약하면서도 알곡소출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된다.

살림집건설계획

남아프리카정부가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건설계획을 작성하였다.

계획에 따라 2014년까지 가난한 주민들을 위한 많은 살림집을 건설하게 된다.

22일 이 나라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밝히면서 정부가 살림집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농산물수출 증가

이란에서 올해 3월에 시작된 현 이란년도의 1.4분기에 농산물수출이 지난 이란년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7.4% 증가되였다.

이 기간 특히 파일수출이 많이 늘어났다.

21일 이 나라 신문 《이란뉴스》가 이에 대해 밝혔다.

협 조

베네수엘라와 웰남이 최근 원유합영기업체를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보다 앞서 뚜니지와 알제리는 경제 및 무역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마 약 압 수

폴롬비아경찰이 최근 보고따시에서 마약을 운반하던 화물자동차를 단속하고 2t 400kg의 마리후아나를 압수하였다. 또한 4명의 마약밀수업자들을 체포하였다.

본사기자

에 이 즈 성 행

유럽나라들에서 에이즈가 계속 성행하여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21일 세계보건기구는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유럽적으로 에이즈비루스에 새로 감염되는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평균 약 1 000만명에 달하고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자 연 피 해

— 웰남에서 17일 열대성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다.

폭풍으로 18일현재 1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행방불명되였으며 수천명이 긴급소개되였다.

피해지역들에서 구제조치가 취해지고있다.

— 볼리비아에서 19일 한파가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이날 아르헨띠나에서도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많은 눈이 내려 28명의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 나라들에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본사기자

에 짚 트 에 건 설 된 다 리

반 미 시 위

팔롬비아의 보고따시에서 21일 이 나라에 대한 미군의 주둔을 반대하는 대중적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시위에는 약 1만명의 각계층 군중이 참가하였다. 시위자들은 시내거리를 따라 행진하면서 미국이 수많은 미군무력을 자기 나라에 들이밀고있는데 대해 규탄하였다. 그들은 미군의 팔롬비아주둔은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헤여나기 힘든 미국의 《반테로전》

《반테로전》은 새 세기에 들어와 생겨난 국제용어이다. 2001년 《9.11사건》 이후 미국은 국제적범위에서 《테로》를 박멸함으로써 자국과 동맹국들 그리고 여러 지역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반테로전》이라는 낯말을 고안해내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였다.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으로 《반테로전》의 막을 연 미국은 《승리》의 쾌재를 올리며 련이어 터무니없는 구실을 내들고 이라크침공에 나섰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미국은 패배자의 운명을 걸머지고 헤여나올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헐떡거리고있다.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의 세례를 받은 때로부터 근 9년이 된 아프가니스탄을 보자.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대규모의 무력과 최신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한 각종 대량살륙무기까지 동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비정규무력인 반미항쟁세력에게 얻어맞지 않으면 안되고있다. 그들은 반미항쟁세력들의 투쟁을 제압하기는커녕 저들의 시체만을 덧쌓고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평정》을 위해 무력증파까지 해가며 안깐힘을 쓰고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항쟁세력들의 공격목표를 더 늘여줄뿐이다. 지난 6월말현재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망자수는 1 000명을 넘어섰다. 이 시각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은 황천객이 되고있다. 미군이 《반테로전》의 미명하에 감행하고있는 무고한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공습만행은 침략자, 략탈자, 인권유린의 주범으로서의 그들의 정체를 낱낱이 드러내보여줌으로써 지역인민들의 반미적 개심을 더욱 키질하고있다. 갈수록 강화되는 항쟁세력의 드세찬 공격앞에 미군은 쩔쩔매고있으며 그들속에서 도주자, 정신병자들이 늘어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은 《반테로전》에 막대한 군사비를 탕진하다나니 파국적인 금융위기의 소용돌이속에 빠지게 되였다. 해를 넘기며 정부가 그 수습에 모지름을 쓰고있으나 전망은 암담하다. 미국의 50개 주중 31개 주가 재정위기로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미국내에서는 정부의 인기가 폭락하고있으며 침략적인 《반테로전》을 당장 그만둘것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시위투쟁이 련속 벌어지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미국의 《반테로전》의 실패상을 보여주고있다.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나라들에서 철군움직임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는것은 미국의 《반테로전》의 실패상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로 된다.

지난해 12월 미국은 3만명의 미군증파를 골자로 하는 새 아프가니스탄전략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라크에 있던 저들의 무력을 철수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대대적으로 들이미는 한편 유럽나라들에도 병력을 더 보낼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러 유럽나라들이 미국의 병력증파요구를 거부하거나 외면하며 무력철수시기를 앞당기려 하고있다. 프랑스는 원조는 하되 무력은 증파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있다. 이딸리아는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증파하지 않을 립장을 밝혔다.

미국의 《반테로전》에 적극 합세하였던 동맹국들이 왜 이러한 태도변화를 보이는가 하는것은 다음의 몇가지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지난 2월 네데를란드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자국군의 철수문제를 놓고 집권여당들사이의 의견대립이 격화됨으로써 련립정부가 붕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미국 다음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무력을 파견한 영국에서도 무력철수와 관련한 사회적압력이 강화되여 정부가 고충을 겪고있다. 더우기 네데를란드에서의 정치지진이후 영국의 정객들속에서는 자국정부가 네데를란드사태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음으로써 미국에 맹목적으로 추종할것이 아니라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도이췰란드에서는 아프가니스탄주둔 무력의 사명과 관련한 내부싸움으로 대통령까지 사임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미국의 침략적인 《반테로전》은 그에 적극 추종하여 아프가니스탄에 무력을 파견한 유럽나라들에 불화의 씨를 뿌리며 이 나라들의 정세를 복잡하게 만들고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을 멀리하며 승산이 보이지 않는 《반테로전》에서 발을 빼려 하는것은 당연하다.

최근 미국대외관계리사회 위원장은 한 미국잡지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정책수정을 요구하였다. 미국공화당의 고위인물은 현 정부의 아프가니스탄전략을 비평하면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패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나토군사령관역시 련합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자만 늘어날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자인하였다.

국제여론이 평하는바와 같이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미국이 이길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있다. 오죽했으면 영국신문 《파이낸셜 타임스》, 미국신문 《인터내슈널 헤랄드 트리분》을 비롯한 서방의 유력한 신문들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국의 패배상을 보여주는 풍자만화들을 게재했겠는가. 미국의 UPI통신은 아프가니스탄은 미국의 수렁창이라고 개탄하였다.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은 전세계를 지배할 허황한 꿈을 꾸며 남의 나라에 발을 들이밀었던 침략자 미제의 힘을 깡그리 뽑아내는 깊은 수렁창으로 되고있다. 미국이 그곳에서 헤여나오려고 아프가니스탄주둔 미군사령관교체놀음을 벌려놓으며 발버둥을 칠수록 그들의 더러운 몸뚱이는 수렁속에 더욱더 깊숙이 잠기고있다. 미국의 《반테로전》의 운명도 그렇게 되여가고있다.

본사기자 배 금 희

패배를 보여주는 수자와 사실

미제는 제2차 세계대전후 저들의 《강대성》의 신화를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리용하였다. 그들은 조선전쟁을 도발하면서 저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와 전법을 리용한다면 능히 조선인민을 쉽게 굴복시킬수 있으리라고 타산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인민군대와 인민은 적들의 수적, 군사기술적우세를 정치사상적우월성과 전략전술적우세로 타승함으로써 미제의 《강대성》의 신화를 산산이 깨뜨려버리고 조국해방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안아왔다.

아래의 수자와 사실들은 조선전쟁방화자 미제의 패배상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 우리가 거둔 전과는 다음과 같다.

적 살상 및 포로 156만 7 128명, 그중 미제침략군 살상 및 포로 40만 5 498명

비행기 로획 11대, 격추 5 729대, 격상 6 484대

땅크 로획 374대, 격파 2 690대

장갑차 로획 146대, 격파 45대

자동차 로획 9 239대, 격파 4 111대

함선 격침 및 격파 564척

선박 로획 12척, 격파 132척, 격침 163척

각종 포 로획 6 321문, 격파 1 374문

각종 저격무기 로획 92만 5 152정

각종 탄환 로획 2 124만 5 071발

각종 통신기재 로획 5 788대

각종 포탄 로획 48만 9 260발

수류탄 로획 22만 4 123개

지뢰 로획 1만 4 449발

우리 인민군대와 인민이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준 손실은 병력과 전투기술기재에서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시기 태평양전쟁 4년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미제가 당한 패배는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력사적대참패였다.

서방의 한 신문은 《미국은 3년간의 조선전쟁에서 심대한 참패를 당하고 조선인민앞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지고 내리막길의 운명에 처하게 되였다.》라고 썼다.

이상의 수자와 사실들은 불을 즐기는 전쟁광신자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를 시사해준다.

본사기자

ㄱ-011339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 (정기간행물발송특별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26-2312, 편집국 326-1328, 론설원실 326-5428, 당력사교양부 326-5528, 당생활부 331-4528, 사회주의교양부 321-3528, 공업부 326-0263, 농업부 326-5628, 과학문화부 321-4628, 조국통일부 321-4882, 국제부 326-4728, 사진보도부 326-0712, 특파기자부 321-4328. 편 집 위 원 회